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2021년까지 조성

전북도·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 8월중 확정 일자리 1200개 창출...노사민정, 임금·노동시간 등 논의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할 전망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 GM 공장),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를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해 육성할 방침이다. 전북도 등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해 당사자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이를 노사민정 상생협약안으로 구체화하고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결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구상이다. 전북도는 우선 시민, 노동계, 업계, 노사 문제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날부터 이틀간 군산대에서 상생협약안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이 프로그램은 상생형 일자리 비전, 지역사회의 상생 대책 등을 토론했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 의제는 임금, 노동시간, 책임경영 방안, 원하청 상생 방안으로,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향후 의제별로 심층토론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수차례 공론화를 거쳐 8월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협약안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가 추진할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모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민과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이 함께 공정 경제를 추구할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지리산 정령치·뱀사골 계곡·광한루...여름 피서, 남원으로 오세요



지리산 정령치 고개 전경.



지리산 뱀사골 계곡.



600년을 맞은 광한루 전경.

남원시, 지역 관광지 홍보 여행객 발길잡기 남원시가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면서 여름철 여행객 발길 잡기에 나섰다. 지리산 달궁 계곡,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리산 정령치 고개, 남원 광한루 등 관광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여행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우선 지리산 달궁 계곡은 왕의 궁궐이 있었다는 달궁 마을 인근의 계곡으로, 뱀사골 계곡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또 달궁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쟁기소, 쟁반

소, 와곡, 구암소, 청룡소, 암심소 등의 폭포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한다. 계곡근처에 야영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이 있고 계곡 아래쪽에 위치한 달궁 마을로 내려가면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숙소도 많다. 백두대간의 역사, 문화, 생태 정보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남원에서 둘러볼만 하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감상하고 에벌레의 성장과정과 특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꿈꾸는 에벌레' 특별전을 연다.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 중 하나인 지

리산 정령치도 추천할만하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접할 수 있다. 황희가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 문제로 남원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만든 광한루도 빼놓을 수 없는 남원의 관광 명소다. 남원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광한루의 건립 6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승월교 아래 요천둔치에서는 '한여름밤의 막걸리 축제'가 펼쳐지고 600년의 타복행사, 사랑의 편지를 타임캡슐에 담은 행사 등도 이어진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고증 안된 '전봉준 생가' 철거키로

서당·안채 등 정확한 자료 없이 복원...예산낭비 비난 제기

고창군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복원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생가를 철거키로 했다.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미숙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군은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채 지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철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01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고창읍 당촌마을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했다. 전봉준 장군은 1855년 12월 3일 이곳에서 태어나 13살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복원된 생가는 안채 1동

과 헛간 1동 등 모두 2동으로 이뤄졌으며 지붕은 초가 형태다. 하지만 당시 중인(中人)이나 지주가 살았던 가옥 형태로 조성하면서 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채의 경우 부엌을 포함해 5칸짜리 집으로 구성됐는데, 농민들은 보통 초가삼간이라고 부르는 3칸짜리 초가에서 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원 과정이 허술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봉준 장군의 생가도 서당, 안채, 사랑채 등으로 구성된 초가삼간으로 알려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이 생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소실돼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창군은 잘못 복원된 생가를 2017년 문화재로 등록하려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최근 철거 방침을 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당시 생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고 대신 생가터 표석을 설치해 문화재로 지정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선정

국비 4억원 확보...금과면 청년정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순창군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라 빛어지는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10일 세종에서 열린 최종 PT'발표와 심사를 거쳐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순창군 외에 전국에서 5개 지역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순창군의 경우 '2030세대 유스토피아 삶의 터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해 선정됐다. '유스토피아'는 청년을 뜻하는 유스와 이상세계를 뜻하는 토피아의 합성어로 청년들이 귀농, 귀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금과면 지역에 청년정착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순창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정읍시, 빗물 이용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청소·화장실 용수 등 빗물 재이용 '물 순환녹색도시' 조성

정읍시가 소형 빗물 이용설치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물 순환 녹색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수돗물 사용을 절약하고 물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소형 빗물 이용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여과시킨 뒤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개소당 담수 용량 2t 톤을 기준으로 최대 450만원(자부담 5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와 공동주택은 1개소당 담수 용량 5t 기준 최대 630만원(자부담 7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부족 해소와 수돗물 절약 효과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정읍시 관계자는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부족 해소와 수돗물 절약 효과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환경단체 '갯벌 서식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없어'

환경단체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정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갯벌 인근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공항에 인접한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해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생태조사단은 "발전단지가 들어설 갯벌은 저어새,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다수의 멸종 위기 생물의 서식지가 되어주는 곳"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

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이 갯벌을 생태유지로 지정해 보전하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인공으로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매우 비생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의 절박한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대규모 선심성 사업을 통해 선거전에 새만금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 대책 없는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